

군산시, 추석 물가안정 총력 추경 1조 5676억 최종 확정

내고장 상품 소비촉진 등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물가대책상황실 구성, 관련부서 합동 지도 점검

군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업체 등에 지역 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구매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물가안정 대책 추진반 운영 ▲내고장 상품 소비 촉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중점 추진 과제로 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먼저, 물가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지원 과에 물가대책상황실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물가지도 점검반을 운영한다.

특히, 농축수산물 14개 품목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가격 담합행위, 가격 미표시, 원산지 표시

불이행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일상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내고장 상품 소비를 적극 장려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기자

익산시, 장점마을에 건강꾸러미 지원

실제 거주 41세대에 전달 가정용 적외선 치료기 등

익산시(시장 정현웅)가 10일 환경 피해를 입은 익산시 장점마을에 건강꾸러미를 지원했다.



익산시(시장 정현웅)가 10일 환경 피해를 입은 익산시 장점마을에 건강꾸러미를 지원했다.

이번 건강꾸러미는 장점마을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41세대에 전달되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건강관리를 위하여 가정용 적외선 치료기, 코로나19 방역 마스크, 손소독 스프레이, 손소독제 등으로 구성되었다.

건강꾸러미를 전달받은 최정숙 이장은 "익산시의 세심한 건강지원에 감사드립니다"며 "코로나19 시대에 농사일을 하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선물이라 요긴하게 사용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와 원광대학교병원, 장점마을 대책위원회는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2019년과 2020년 주민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했으며, 건강검진후 암 및 피부질환 발견시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치료비를 지원한다.

또 익산시보건소에서는 장점마을 주민에게 밀착형 방문건강관리, 찾아가는 한방진료, 보건지소 진료소 본인부담금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주민 종합건강검진, 정신·심리치유 지원 등 건강관리 및 건강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익산=장영원기자

군산시, 시민광장플랫폼 정책제안 공모이벤트

군산시는 시민소통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구축된 '참여민주주의플랫폼 시민광장'의 활성화와 여러 시민들의 제안과 의견을 시정현안에 반영하고자 정책제안 공모이벤트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공모기간은 오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 달간이다. 공모주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군산형 그린뉴딜 시민참여, 기타 시정발전 등에 대한 정책제

안이며, 시 홈페이지 소통참여 → 시민광장플랫폼 → 제안참여의 정책제안 또는 토론참여의 시민토론포방을 통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

제안된 시민의견은 1차 선정 및 최종 선정을 거쳐 시상이 결정되며 최우수상 1명 30만원, 우수상 3명 20만원, 장려상 5명 10만원 시민인기상 10명 5만원이 모바일상품권으로 지

급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소통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연2회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군산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폐회... 16건 부의안건 처리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제232회 임시회를 9일간 개최하고 제4회 추경예산안 등 16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10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 및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 신영자·김영자·서동수·서동완 의원의 조례안 등 1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이와 함께 이번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5,676억 5,300만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5,200만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계상조치 하고 1조 5,676억 100만원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이번 추경심의회에서 시급한 예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군산조선소 재가동 지원사업'을 삭감했으며, 원안가결된 추경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각종 현안사업 추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10일 2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자·서동완·정지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5분 발언에 나선 김영자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군산시 또한 지난 2012년 8.13 폭우로 500년 빈도로 40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차량침수, 산사태, 주택 및 상가 침수 등 사상 유례없는 피해를 겪은 후 상습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을 세웠지만 그중 가

장 핵심 사업인 육회천 정비사업이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동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회계과 영조물보험을 비롯하여 6개과에서 7개의 보험으로 약 11억 8천만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입해 불의에 당한 사고와 재난, 질병 등이 발생하였을 때 혜택을 볼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제도이지만, 홍보가 없어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보험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노동현장에 뛰어드는 청소년들은 늘고 가고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청소년 노동 정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청소년 노동자의 35%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경험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초과근무 요구나 임금 체불 등 부당한 처우도 늘어나고 있다며,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노동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길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제4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중용한 예산인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바란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시민들께서 많은 피로와 어려움이 있으니 슬기롭게 이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군산=한경봉기자

군산시, 경포천 서래숲길 만든다

경장동 송경교~수송동 원협 2km

군산시가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서래숲길 조성사업을 시작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군산시는 도심을 관통하는 경포천 일부 구간인 경장동 송경교에서 수송동 원협 공판장 2km에 경포천 서래숲길 조성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서래숲길은 경포천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지만 녹음이 부족해 여름철 폭염과 미세먼지에 취약한 점을 해소하고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기 위해 시작하게 됐다.

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사업비 18억원을 들여 양 방향 인도를 따라 테마 산책길과 꽃길을 조성하고 하천 둔치에는 유채꽃밭을 조성해 오가는 시민들에게 그늘과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수목 식재로 인해 좁아지는 일부 구간에는 데크를 설치해 도보 시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수목의 종류도 다양하게 선정해 계절별 아름다운 산책길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에는 도시숲과 조림사업 집행잔액을 활용해 1차적으로 수송동 한라비발디 아파트 뒤쪽부터 시작하고 내년에는 도비 보조를 받아 나머지 구간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심문태 산림복지 과장은 "경포천 서래숲길은 군산시 도심을 관통하는 군산의 대표 얼굴 중에 하나인 만큼 하천을 따라 녹음이 가득한 산책길을 조성해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래숲길 이름은 서울로 가는 포구라는 뜻의 슬에포구 또는 서래포구로 불렸던 경포(京浦)의 옛 이름에서 착안하여 지은 이름이다.

/군산=한경봉기자

지역 소식통

향토음식 시범업소 선정

익산시가 관내 대표 농·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만든 향토음식(마미닭볶음탕, 고구마순닭개장) 취급 시범업소 4개소를 선정했다. 선정 절차는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통해 6개소를 선정하고, 위생 서비스 시설 분야에 대해 현장심사를 실시해 평균 80점 이상인 업소 4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시범업소는 ▲다솔향(고구마순닭개장,마미닭볶음탕) ▲명아우리(마미닭볶음탕) ▲산정호수(마미닭볶음탕) ▲솔피구름(마미닭볶음탕)으로 해당 업소에는 향토음식 조리법을 제공하고 홍보물 및 위생용품 등을 지원한다.

또한 2년간 운영한 업소에 대해서는 향토음식점 신청자격을 부여해 익산시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농업용 저수지 안전 점검

익산시가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후된 관내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대상지는 익산시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 107곳이며, 1910년대 이후 설치되어 약 50~90년이 경과된 노후 저수지여서 누수 등 안전율이 급감된 상태이다.

이에 시는 저수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관리와 함께 물리탐사 등 객관적 지표에 의한 시설물 등급 분류로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안전점검 방식은 제방, 여수로 등 시설 구성요소별 외관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발견된 누수 및 손상 등 시설물 상태변화 정도를 근거로 상태평가 후,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아울러 점검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 서 시정 조치하고, 결함의 의심되는 저수지는 경중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등을 거쳐 개보수 계획을 수립, 연차적인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농여건 등의 변화로 용수 공급 등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는 용도폐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